

부모 잃은 중증 발달장애인 “갈 곳 없나요”

부모를 잃은 한 중증 발달장애인이 장애인거주보호시설에서 받아주지 않아 정신병원에 입원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장애인단체는 발달장애인이 머물 수 있는 시설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시설들이 환자를 거러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 능력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거주시설 등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최근 정부의 거주시설 소규모화 방침으로 시설 입소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11일 광주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지적·지체장애 1급의 발달장애인 A(여·22)씨는 급성패혈증 소크로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을 해야하지만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입소 거부 의사를 밝혀 10일째 퇴원을 못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유일한 보호자인 어머니를 잃고 자신과 같은 발달장애 1

급의 오빠(24)와 단둘이 남겨졌다. A씨는 그룹 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오빠와 달리 행동장애가 심해 단기보호센터와 정신병원을 오가는 생활을 해야만 했다. 지난 3월 중순에는 급성패혈증 소크로 광주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고, 최근에는 퇴원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씨를 돌보고 있는 성년후견인 김모(여·51)씨는 “저와 장애인단체가 A씨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입소를 의뢰했지만 정원이 초과됐다는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며 “한 중증장애인 시설은 A씨의 입소 경험에 대한 선입견만으로 입·퇴소위원회를 열어 입소불허라는 결정을 내렸

다”고 밝혔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김유선 회장은 “A씨가 또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할 경우 비슷한 사례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돼 광주시와 자치구를 찾아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다른 시설을 알아보라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결국 부모까지 잃은 A씨가 갈 곳은 정신병원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현재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광주지역 거주시설 20여곳 중 A씨와 같은 중증 발달장애인이 입소가 가능한 시설은 단 2곳으로, 정원은 90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도가니 사태 이후’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점차 그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염전도에 사건 이후 광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1년 넘게 생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B(52)씨의 경우도 입소가능한 거주시설을 찾지 못해 3개월째 대기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무연고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시설 입소 자체도 힘들고, 일부 거주시설은 대기지만 100여명에 이르는 게 장애인단체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고령의 부모들은 대안으로 정신병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지역발달장애인지역회 노미향 회장은 “광주의 전체 장애인 6만8000여명 중 10%에 가까운 6700여명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이해는 하지만 선진국과 같이 중증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고령의 부모들을 위한 시설 마련이 조속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5명 숨진 담양 펜션 바비큐장 화재 참사 소방관리 부실 전남도도 손해배상 책임

운영자와 16억 공동 배상 판결

2014년 5명의 목숨을 앗아간 담양 펜션 화재 사건과 관련, 소방기 비치 조치를 하지 않은 전남도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조정웅)는 담양 펜션 바비큐장 화재로 숨진 5명의 유가족 11명이 낸 담양 펜션 운영자와 전남도,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운영자 부부와 전남도는 유가족에게 공동으로 총 1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상액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운영자 부부와 전남도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운영자 부부와 전남도 간 배상 비율 문제는 추후 소송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양 펜션 화재 사건은 2014년 11월 15일 밤 9시40분경 전남도의 모 대학 동아리 선배 26명이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불이 났고, 불길에 전장의 갈대로 옮겨 붙으면서 삼시간에 번져 5명이 숨진 참사다.

무려가 건축물인 바비큐장은 면적이 57㎡로 적지 않은데 출입문은 왼쪽 끝에만 1곳 있었다. 외벽은 나무판자, 지붕은 비닐,

내부천장은 갈대로 엮은 발이 설치돼 있어 화재에 취약했다. 하지만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운영자 부부는 아무 대배 없이 화재에 취약한 바비큐장을 운영했고, 전남도와 담양군은 불법으로 설치된 바비큐장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전남도 소속 담양소방서 소방공무원들은 펜션의 소방시설이 관계당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화재의 발생 위험은 없는지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두 차례 소방특별조사를 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바비큐장에 소화기가 비치됐더라면 화재 초기에 진압하거나 적어도 바비큐장 전체로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늦출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불법건축물을 철거 조치하지 않은 담양군에 대해서는 “2012년 2013년 3월까지 수차례 위생점검을 했으나 공중위생관리법상 균정 공무원이 소화기 비치 등의 개선을 명할 권한이 없어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해 12월 추락사고가 발생해 4개월여동안 운행이 중지된 광주 동구 지산유원지 리프트가 11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산유원지 리프트 추락사고 4개월만에 운행 재개

시설 개선·안전관리 인력 채용

지난해 12월 탑승객 추락사고가 난 광주 동구 지산유원지 리프트가 4개월여 만에 운영을 재개했다.

11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지산유원지 리프트 운영사인 ㈜나경인터내셔널이

추락 지난 1월 시설개선명령 이후 시설개선과 안전관리 분야 전문 인력을 채용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정상 운영을 허가했다.

광주시와 동구는 지난해 12월 리프트 추락사고가 발생한 이후 전문가 등으로 특별점검 TF팀을 구성해 ▲안전바와 일

체형 발판 설치 ▲압삭기(케이블과 의자의 연결장치) 점검체계 개선 ▲운영구간 내 CCTV 설치 ▲점검매뉴얼 정비 및 전문 점검장비 비치 ▲신축성과 충격 흡수력이 뛰어난 안전그물망 교체 ▲안전관리 전문 인력 확보 등을 명령했다.

그 결과 시설개선으로 교통안전공단

임시검사에서 장비·시설 분야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안전관리 분야 전문 인력 확보가 안 돼 지난 10일까지 사업정지와 함께 2차 시설개선 명령을 받았다.

한편 지산유원지 리프트는 지난해 12월 승객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등 2010년부터 4건의 추락사고가 발생한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시설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마사회 경비노동자 16명 전원 해고 위기

한국마사회 50세 미만 연령 제한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이하 광주마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노동자 16명 전원 마사회 측의 고령연령 하향조정 계획 등으로 집단해고 위기에 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11일 한국마사회의 인원감축과 고령연령 하향조정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마사회는 전국 30개 장외발매소 경비구역 비정규직노동자의 계약만료(오는 30일)를 앞두고 지난 7일 경비구역업체 입찰공고를 하면서 현재 255명의 경비노동자 정원을 150명으로 감축하고, 기존 60세까지의 연령제한을 50세 미만으로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다.

노조는 “현재 광주마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노동자는 모두 16명으로, 전체가 50세 이상이기 때문에 집단해고될 위기”라며 “광주마사회는 정원으로 8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일까지 인원 감축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광주마사회에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2차례의 청소년노동자 집단해고 사태로 개장 당시 ‘지역주민 고용창출’이라는 약속을 저버린 광주마사회가 또다시 지역민을 해고하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마사회 관계자는 “본부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화물차 불러 물류회사 컨테이너 6개 훔쳐 도주한 40대

○~대형 화물 트럭을 불러 물류회사 공터에 있던 철재 컨테이너를 제 것인 양 신고 훔쳐간 40대가 경찰서에서 ○~11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서모(42)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에 광산구 소촌동의 한 물류회사 화물 분류장에 있던 컨테이너 6개(3900만원 상당)를 11t 화물차 6대에 신고 달아난 혐의,

○~컨테이너를 도난당한 지도 몰랐던 물류회사 측은 최근 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검거에 나선 경찰은 도난당한 컨테이너 크기와 무게를 고려할 때 차량에 적재하기 위해선 지게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탐문을 벌여 결국 사씨를 검거.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9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5타경 1935	1	광성군 삼계면 신기리 164 598㎡	대	16,744,000	매각제외제시외건물임
	1	회순군 남면 칠산리 212 403㎡	대	16,766,000	일괄매각, 매각제외제시외건물임
2015타경 19764	1	장성군 북일면 오산리 산5-1 6563㎡	임야	34,127,800	맹지, 자연림
2015타경 20968	1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 산84 10711㎡ [1330분]	임야	5,074,114	일괄매각, 맹지, 공유자우선매수권
2015타경 20887	1	동송 산86 10543㎡ [목록1과지분동일]	임야	2,391,940	공유자우선매수권
2015타경 21293	1	동송 산98 9421㎡ [목록1과지분동일, 맹지]	임야	1,662,150	공유자우선매수권
2015타경 62911	1	서구 중앙동 산236-2 198㎡ [27000분의2159분]	임야	432,585,800	공유자우선매수권
	2	동송 산236-10 41615㎡ [135000분의10795분]	임야	25,889,900	일괄매각, 일부과수원임수식채농지취득자격증명
2015타경 19177	1	동송 산9-8 1051㎡	전	5,267,720	공유자우선매수권
	2	동송 산9-5 417㎡ [목록1과지분동일, 농지취득자격증명]	전	5,267,720	공유자우선매수권
	3	동송 산9-6 1002㎡ [목록1과지분동일,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전	13,299,920	농지취득자격증명
	4	동송 산9-7 585㎡ [목록1과지분동일,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전	7,499,880	농지취득자격증명
	5	동송 산9-8 1051㎡	전	24,793,700	일괄매각, 일부과수원, 유실수식채
	6	동송 산9-9 625㎡ [목록1과지분동일, 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전	24,793,700	일괄매각, 일부과수원, 유실수식채
	7	동송 산9-10 1101㎡	전	34,462,000	일괄매각, 일부과수원, 유실수식채
	8	동송 산9-11 615㎡	전	34,462,000	일괄매각, 일부과수원, 유실수식채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5타경 14790	1	동구 동명동 161-7 333㎡	대	1,958,435,450	일괄매각, 옥상
	1	동구 동명동 54 오피스텔 1층 248.26㎡ 2-8층 249.87㎡	대	1,958,435,450	일괄매각, 옥상
2015타경 19177	1	광산구 하남대로92, 4층 401호 316.86㎡	근린시설	780,000,000	780,000,000

[자동차, 중기]

2015타경 22111	1	사용번호지:목포시 양림로190번길4[용달용]	자동차	14,000,000	보관:광산구산정동15684대주정
	1	사용번호지:광주 북구 문신로 30, 2015년 9월 24일 등록	자동차	22,000,000	보관:광산구산정동15684대주정
2016타경 1449	1	10호 [승용차, 캠핑카 포함] 등록번호: 699-99-35 차량:캠리 CANBY Hybrid 연식:2013	자동차	22,000,000	보관:광산구산정동15684대주정
2016타경 60592	1	사용번호지:서구 용암동 용암로11번길 1 연식:2011	자동차	11,000,000	보관:광주소:서구금동동531나로에프씨주차장

[기타]

2014타경 25410	1	나주시 다시면 송촌리 95 1층3304.46㎡ 2층78.54㎡ 3층5312.75㎡ 4층78.54㎡ 부속 건물 사무실 및 옥상 1-2층 각 252.5㎡	공장	7,966,869,67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014년 24393(중복), 2015타경 14226(병합)
	2	동송 산 95 13887㎡ [목록번호1:공정지정법제6조기계, 기구포함 [물건번호1:대수정제외], 기계 기구목록참조 [일부소재물품]	공장용지	7,966,869,67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014년 24393(중복), 2015타경 14226(병합)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5타경 18266	1	담양군 무정면 불안리 385-1 6552.9㎡	공용용지	1,393,722,4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공유자우선매수권
	1	담양군 무정면 무정공단길 34-5 1층 1097㎡ 2층 200㎡ 창고 660㎡ 창고 234㎡	공장, 사무실	1,393,722,4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기구포함 [물건번호1:수정제외]

●●●●●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과 디자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정대주권인」에 관한 설명: 대주권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대주권인은 대주권인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대주권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대주권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과 디자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정대주권인」에 관한 설명: 대주권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대주권인은 대주권인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대주권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대주권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